

출장보고서

I. 출장개요

1. 출장자: 협력정책실 선임연구위원 서진교
2. 출장기간: 2011년 12월 13일 ~ 12월 19일(5박 7일)
3. 출장지: 스위스 제네바
4. 출장목적: 제8차 WTO 각료회의 및 ICTSD 심포지움 참석

II. 출장일정

일자	행선지	활동사항	비고
12월 13일 (화)	스위스 제네바	인천공항 출발/ 제네바 착	파리 경유
12월 14일 (수)		대표단 회의	
12월 15일 (목)		제8차 각료회의 참석	
		ICTSD 방문	
12월 16일 (금)		ICTSD 국제 심포지움 참석 및 패널 토론	
12월 17일 (토)		제 8차 각료회의 참석	
12월 18일(일) ~19일(월)	인천공항	제네바 출발/ 인천공항 착	파리 경유

III. 활동 내용

1. 제8차 WTO 각료회의 결과(별도 보고: 오세경 참조)

2. ICTSD 국제 심포지움 참석 및 패널 토론

- 'Emerging economies와 다자통상체계' 라는 주제하에 WTO빌딩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 패널리스트로 참석하여 논의

- 주요 논의 내용

- . 먼저 emerging economies란 개념 자체가 명확히 정립된 것이 아니라는 데 입장을 같이 하며,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볼 수 없는 사회 정치적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논의
- .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세계 경제 및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데 의견 일치
- . 토론중 라미 WTO 사무총장이 현재 도하협상에 대해서 상호주의(reciprocity)와 융통성(flexibility) 사이의 타협점 찾기가 어렵다는 발언을 함(이는 결국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과 중국, 인도, 브라질 중심의 emerging economies 사이의 gap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임)
- . 러시아의 WTO 가입은 거의 18년 동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온 결과 러시아의 제도적 개혁에 큰 진전을 기대하며, 그러나 러시아는 중국과는 경제구조가 달라 WTO 가입으로 중국만큼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데 동감(러시아는 특히 자원 의존형 경제)
- . 토론 말미 신흥시장국과 개도국을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 있다고 지적되었음.
- . 흥미로운 것은 결국 개도국들도 중국이나 인도의 수출시장화될 것을 걱정하는 분위기(결국 이제 남남무역도 과거의 남남무역이 아니라는 관점)였다는 점임.

3. ICTSD와 협의

- ICTSD에서는 아시아쪽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여 KIEP와 연구협력을 원하였으며, 이에 연구원의 visiting scholar제도를 설명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기로 함.

4. 관찰 및 평가

- 오세경(제8차 WTO 각료회의의 성과와 정책 시사점) 참조